

종합·해설



SNS 정치참여 또 위력

유명인들 투표 독려 인증샷 릴레이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이 '유명인의 투표 독려'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이랑곳하지 않고 제치 있는 투표 인증샷을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네이버들의 끊거운 관심을 끌었다.

일부 연예인들은 자신의 얼굴을 옷 등으로 반쯤 가리거나, 투표소 안내 표지판만 찍는 등 재치 넘치는 투표 인증샷으로 선관위의 불법 논란을 피해가며 투표를 독려해 눈길을 모았다.

선관위는 지난 24일 "일반인이 단순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투표 참여를 권유·유도하

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 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MBC 무한도전의 김태호 PD는 트위터를 통해 "유명인 투표 독려금지 '유명인' 참 애매한 기준"이라고 문제제기를 했고, 방송인 김제동은 "요즘 별로 안 유명하잖아요, 만약 불법이라면 마스크하고 안경을 벗으면 못 알아보겠죠"라고 재치있는 글을 올렸다.

그룹 투투 출신 황혜영 씨는 남편 김경록 민주당 부대변인과 디정히 며리를 맞댄 투표 인증샷을 공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함께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 바위 앞에서 웃고 벗고 인증 샷 한번 날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고민되네"라는 글을 올려 투표 참여를 우회적으로 독려했다.

가수 이효리는 자신의 모습 대신 투표소를 배경으로 아완관 순심이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배우 이동욱은 자신의 미투데이에 "가족들과 투표하고 왔다"며 투표소 안내 표지판만 찍어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 역학구도 영향 불가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내일 전격회동 관심 집중

야권통합·기득권양보 의견 모을까

10·26 선거 결과 정치권 지각변동

민주당 내부 역학구도 영향 불가피

토대로 민주당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핵심인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격 회동에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어떠한 논의와 공감대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야권대통합 및 야권연대의 흐름은 물론 민주당 내부의 역학구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현재 상황에서 통합 전당회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과거 열린우리당식의 분열과 반목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날 회동에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심을 바탕으로 정권 교체와 호남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공감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 내외에서 거론되고 있는 각종 정치 상황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원칙'과 '비전'이라는 양축을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론되고 있는 '호남 물갈이론'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감과 최고조라는 점에서 이날 회동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될지는 미지수다. 내년 총선을 둘러싸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제각각인데다 정치적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남 지역 모 의원은 "이날 회동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겠지만 정치적 경변기에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내년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조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0·26 재보선 투표율 45.9% 역대 최고

서울시장 48.6%

순창군수 7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837만4067명 가운데 460만361명이 투표해 48.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릴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평일에 치러

진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이다.

올해 4·27 재보선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구 투표율 49.1%보다는 0.5%포인트 낮았지만 작년 7·28 재보선은 평균 투표율 40.5%보다는 8.1%포인트 높았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의 투표율이 53.1%로 가장 높았고, 부산 동구청장은 39.5%, 대구 서구청장은 22.9%를 기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의회 맥빠진 도정질의

26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된 전남 도의회 도정질의가 현안보다는 겉핥기식, 지역구 민원성 질문 등 맥빠진 질의로 눈총을 끊었다.

특히 F1 코리아 그랑프리 폐막 직후 열린 만큼 이에 대한 도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박종영 전남지사와 장만체

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업무에 대한 도정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도정질의는 자사와 교육감을 발언대로 불러내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문제점을 파헤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질의는 이날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 의원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답변은 단답형으로 간단하

게 듣고 마는 형식적인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F1대회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묻는 질의서를 먼저 배포해 눈길을 모았지만 실제 질의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로 시민사회단체가 이전하지 않는 이유를 따지거나 자사 공관 앞 암賓관의 도의원 사용 요구 질의 등으로 눈총을 쳤다. 이 때문에 도정과 도교육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헤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자치구·郡제도, 고비용·저효율 구조

행정낭비와 주민불편·갈등 초래한다”

지방행정체계개편추진위 토론회서 제기

국내 자치구·군 제도가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로 행정낭비와 주민 불편,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계개편추진위(위원장 강현숙)는 26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시대에, 우리나라

자치구·군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낭비와 주민불편,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별·광역시와 구·군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시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현행 대도시 행정체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자치위원회도 자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설치방안으로 ▲약한 준지방자치단체형 ▲강한 준 지방자치단체형 ▲자치단체형 등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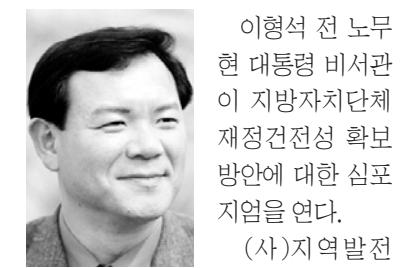
이날 토론회로는 김재관 원광대 교수와 서정훈 광주NGO센터장, 심병희 광주 남구의회 사회건설위원장, 이경수 광주 매일신문 사회부장, 황대영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 김인호 조선대 교수, 길종백 순천대 교수, 류한호 광주대 교수, 신기현 전북대 교수, 한병규 전주 경실련 사무국장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행정체계개편추진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자체 재정 건전성

내일 심포지엄 개최

이형석 前노대통령 비서관



이형석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이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연다.

(사)지역발전정책연구원 주최

로 28일 오후 광주 북구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 전 비서관은 정부의 세계개편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개선안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고현석 전 국무수석, 이진 정부 공의위원, 김영진 광주단지기업주지의 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또한, 심포지엄의 분위기 전환을 위해 기현수 들키꽃마을 사람들을 촌장의 공연이 함께 이루어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친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료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엔지 방수, 비단자 전문생산업체
이엔지 미화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능성동 660-29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호남랜드공인증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나공사광주전남지사앞 유지빌딩 501

서구 세하동 일반주거지역

서구 세하동 동화미를 부근, 전 2차선 도로접침
1,035㎡(313평)(도로 77평포함), 매매가 4억
2000만원, 식당, 사무실, 기타, 적합

건물매매(용봉지구)

• 북구 신인동 용봉지구 옆 대지367㎡(111평), 3층,
건물면적 598.8㎡(181평), 매매가 4억9000만원, 보증
금 6,000만원 월330만원.

• 북구 오치동 오치주공앞 대로변 대지298㎡(90평),
건물면적 875㎡(265평),
매매가 9억9000만원, 보증금 8200만원 월620만원,
상권양호.

소태동 잡종지매매.

• 동구 소태동 대아이아파트 부근, 잡종지, 627㎡(190
평), 매매가 3.3㎡당 130만원, 복개된 국유지 구가 약
70평 별도 이용가능.

완도 독섬 매매.

• 완도군 금일면 독섬 매매, 면적 : 198.184㎡(59,
950평), 매매가 평당 2만원, 지하수 있음, 종전에
사람이 살았으며 현재 무인도, 생산관리지역

화순도곡 전원주택지

• 화순군 도곡면 효신리 도곡면소재지부근, 6,745㎡
(2,040평), 관리지역, 현재임야, 2차선 포장도로 접
함, 매매가 3.3㎡당 16만원.

010-3616-8698, 062-233-2222

수완지구 상가분양 전문

학원·병원·한의원·고급식당
독서실·PC방·노래방·실내골프장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즉시입주가능 시비없음

국민은행뒤 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뒤 모이엘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신한공인증개사 ☎ 062)961-3377

★건축시공해드립니다★

(원룸·상가·고시원·도시형 주택전문)

• 수익성상가 · 인천한재산증식

• 노후보장 · 퇴직자 환경

설계·건축·분양 임대

<div data-bbox="662 878 80